04 2015
vol. 365
www.mise1984.com

SINCE 1984 · Monthly Art Magazine

美術世界

04
9 771227 606504
ISSN 1227-6065

월간 미술세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0년도 우수콘텐츠 잡지,
제1회 문화관광부선정 우수 잡지, 제39회 잡지의 날 대통령상 수상

Cover Artist 이창조

Special 아트페어, 그 이상의 아트페어

예술의 기원으로부터 해방된 미디어 아트 ; 시간의 역사를 넘어 "지연된 시간"으로

《빌비올라》 / 3.5~5.3 / 국제갤러리

글 | 정용도 쿤스트독 미술연구소장
자료제공 | 국제갤러리

빌비올라, 〈Night Vigil〉, 비디오/사운드 설치, Overall projected image size: 2.01x5.28m; room dimensions variable, 18분 6초, 2005/2009, 배우: Jeff Mills, Lisa Rhoden 사진 : Kira Perov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진행되는 사건의 연속 속에 시간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시간을 존재자가 아닌 존재성을 만들어주는 틀이자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적 조건으로 보기 때문이다. 비올라는 시간을 "물질처럼 명백한 것"이라 말하고, 그의 작업의 가장 실제적인 질료(substance)라고 말한다. 그에게 물질은 지속성(물론 모든 것은 소멸의 운명에 놓여있지만, 여기서 지속성은 일정한 기간을 지니고 존재한다는 면에서 지속성을 말하는 것이다)이라는 공간적인 질료에 관한 언급으로서의 성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질료들이 과정의 차원에서 겪게 되는 시간적인 변화의 운동성과 그로 인해 드러나는 물리적인 양태들(aspects)이 중요한 것이다. 그에게 질료는 시간을 드러나게 하는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일 뿐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삶과 예술적 생산물들이 겪는 변화를 두고 서로의 관계에 관해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상황들에 대해 내리게 되는 결론은 예술작품들이 인간적 삶의 차원보다 더욱 강력한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험의 양상이 개념화 되는 과정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다. 많은 사건들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주체로 정립시키고 있지만, 예술적 고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예술작품으로 완성된 이후 우리 인간의 삶은 예술이라는 대상에 의존해 스스로의 삶을 재정의 하고 회고하기 때문이다. 이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역설(paradox),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확장(expansion)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주체와 대상의 역전이라는 역설적 관점에서 보면, 예술은 변화를 포용하는 과정을 배제하고 존재자로서의 특성만을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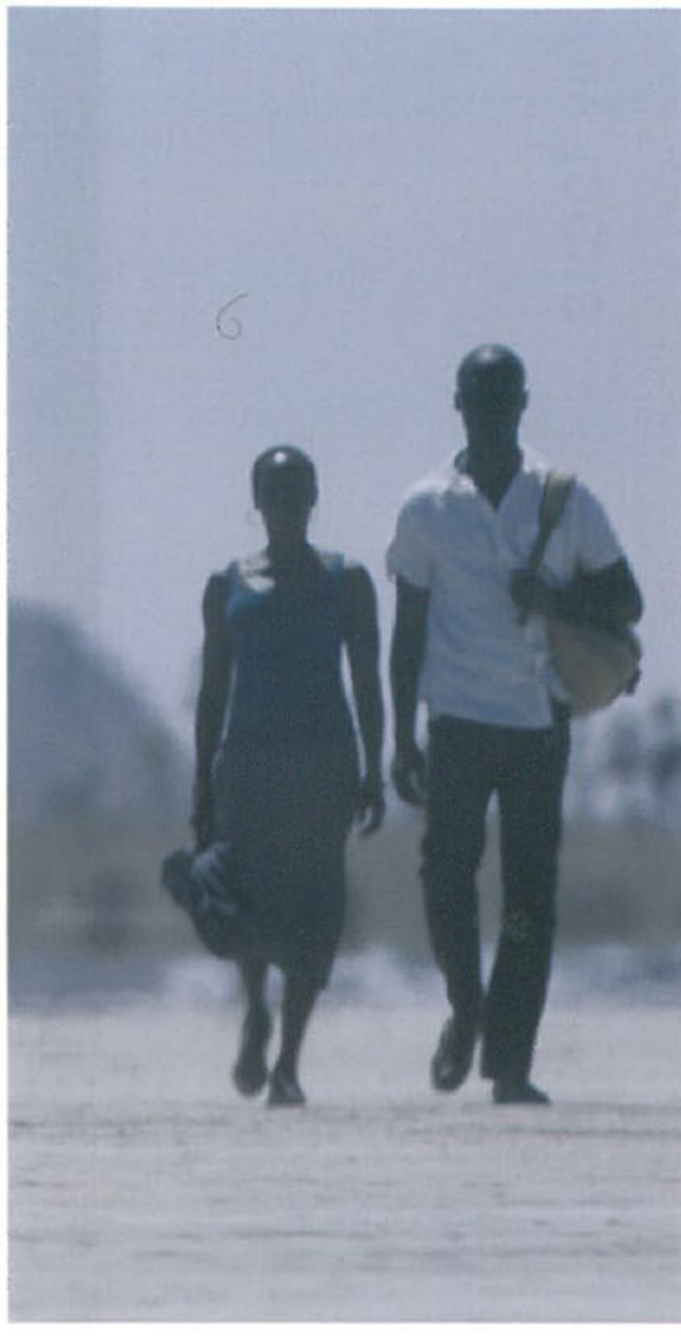
지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물론 외연적으로도 모순을 가지게 된다. 이는 공간적인 차원의 예술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정적인 기반에서 예술의 의미론적 구조를 탐색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결과론적인 시각으로, 예술작품 자체의 특성에 집중하여 하게 되는 분석적 접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매체 예술작품들(회화나 조각과 같은 물질적 토대 위에서 만들어지는)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으로 존재해온 공간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을 미디어 아트에 적용하는 것은 '제논의 역설'과 같이 상황을 스스로 해석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 갈 수 있는 어려움을 만들어낼 것이다.

미디어 아트 작품들은 스스로 결과적인 존재성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존재의 속성들을 시간의 과정 속에 펼쳐놓는다. 이런 면에서 미디어 작품이 가지고 있는 해석의 지평은 문화와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만큼이나 역동적인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비올라는 시간의 관점에서 그의 작품을 형성시킨다. 그리하여 존재 자체가 아닌 존재가 형성되는 과정이 예술의 중요한 속성으로 드러나게 만든다. 여기서 미디어 아트와 같은 예술은 인간의 삶에 대한 은유로 작용함으로써 단지 개념적인 차원의 영역에 제한될 수도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예술의 지평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예술이 가질 수 있는 해석의 가능성이고 미디어 아트 역시 전통매체 예술작품들과 다름없이 예술이라는 차원에서 좀 더 확장된 영역에서의 의미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

빌비올라, 〈The Encounter〉, 비디오/사운드 설치, 92.5x155.5x12.7cm, 19분 19초, 2012, 배우: Genevieve Anderson, Joan Chodorow 사진 : Kira Perov

비올라의 작품에서 우리는 언어철학 이전의 소피스트들의 감각철학, 혹은 경험철학적 관점을 발견할 수 있다. 소피스트들은 이 세상의 원리와 그에 대한 근원적 작용에 대한 호기심을 지식의 과정으로서 발전시켰다. 그들에게는 문화적 호기심과 삶의 가치들에 관한 진지한 열망이 존재했다. (일반적으로 소피스트들을 철학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지식 자체에 관한 인식론적 탐구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지식을 활용하는 그들의 현실적인 관점과 태도 때문이다.) 소피스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현대의 과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처럼 좀 더 구체적인 테제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때문에, 그들이 문화적 근거로서 이 세계에 대한 혹은 삶에 대한 역사적 과정, 과정에 관한 시간의 애매모호한 개념적 도구로서의 특성을 언급하기보다는 시간 안에서의 운동과 진행 같은 것들을 삶의 속성으로 제시함으로써 의식의 영역을 동적인 활동의 영역으로 해석할 여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런 면에서 예술을 그들의 관점에서 해석하거나 이해한다면 우리는 칸트로 대표되는 근대 미학이 속해 있는 주체철학의 정적인 관조적 차원 혹은 개념적 성과로서의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을 '감각적 차원의 흐름, 변화, 운동으로서 예술작품'이라는 관점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1905년 아이슈타인이 특수상대성이론을 발표한 이후로 그동안 절대적이라고 생각되어 왔던 시간과 공간은 속도를 매개로 변화될 수 있는 상대적인 조건들로 변했다. 이것을 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맥루한의 '지구촌(Global Village)'이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현대 컴퓨터 기술의 차원을 대입하면 네트워크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미디어 아트의 작품 창작자는 관객의 작품에 대한 관점과 다른 시간적 차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디오아트와 같은 작품에서는 그 작품이 실제적으로 (상영)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의미론적으로 수직적(역사적)이고 수평적(현재적)인 경계를 뛰어넘고 포용하는 미디어 아트에서의 시간은 관객이 경험하는 개념적인 현실의 시간과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되어야만 한다. 말하자면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 장치나 교통수단 내부에 있는 사람(작가)



빌비올라, 〈Ancestors〉, 비디오/사운드 설치, 155.5x92.5x12.7cm, 21분 41초, 2012, 배우: Kwesi Dei, Sharono Ferguson
사진 : Kira Perov

은 외부의 절대적인 거리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런 교통수단들이 우주선처럼 아주 빠른 속도를 가지게 되며 외부와 내부의 시간적인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된다. 우리가 이용하는 국제선 여객기의 속도는 평균 시속 900Km로 시계의 속도와 별로 차이가 없지만, 초속 300,000Km인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를 지닌 우주선이 제작될 수 있다면 우주선 안에서의 시간과 지구상에서의 시간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게 된다. 이것은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른다는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간의 지연"에 관한 설명이다. (비올라 작품의 레퍼런스는 역사적 시간들을 뛰어넘어 존재하고, 그런 레퍼런스들이 속도를 지닌 비디오 작품으로 시각화 된다.)

형식적인 면에서 보면 이번 전시의 비올라 작품의 특징은 초고속 카메라를 가지고 찍은 영상을 일반 속도로 상영하는 그의 2000년대 비디오 작품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기원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관객들이 보는 그의 작품들 속의 상황은 아주 서서히 진행된다. 이런 작품들로 인해 단순히 주제(subject matter)를 통해 동영상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 안에서 공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전통매체 작품들을 해석하는 방식, 말하자면 예술의 역사적 상황들에 대한 사건적인 언급을 가지고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졌다고 말할 수도 있다. 최소한 시간의 역사성 혹은 작품의 진행과 속도에 관한 문제가 어떻게 예술적인 영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의 문제에 관한 새로운 미학적 관점들이 필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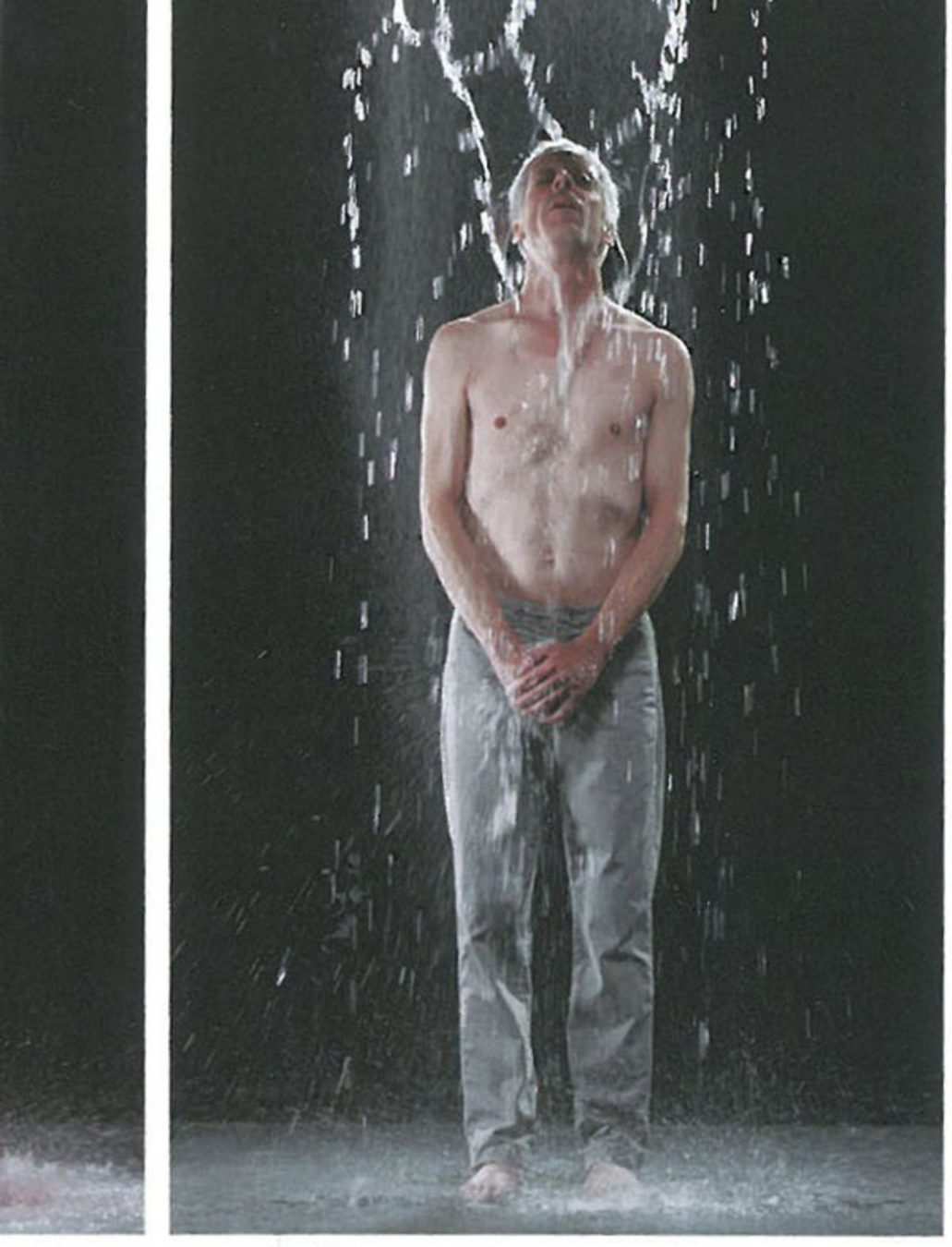
예술작품은 의미를 요구하고 주장하고 포함하지만 관객은 그런 상황들을 개인의 삶과 감각적인 계기들 속에서 이해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관객들 각자에게 시간은 개별화 되어 있다. 다시 한 번 하이데거의 관점을 빌려서 이야기 한다면 관객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것이다. "누구의 시간인가?", "나는 나의 시간인가?"와 같은 좀 더 진화된 시간에 관한 질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현실의 개념화된 시간들(시계적인 시간)이 작품을 감상하는 관객들의 계기적인 시간과,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내적인 시간이 공존

빌비올라, 〈Inverted Birth〉, 비디오/사운드 설치, Projected image size: 5x2.81m; room dimensions variable, 8분 22초, 2014, 배우: Norman Scott 사진: Kira Perov

하고 있다. 말하자면 작가의 거시적인 내적 시간(지연된 시간), 관객의 계기적이고 절대적인 경험적인 감각적 시간, 지구의 자연적인 순환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시계적인 개념적 시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시간들이 빌 비올라의 작품에서 동시에 작용하는 방식에 관해 관찰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Night Vigil〉(2005/2009)에서 작가는 촛불에 불을 붙이는 과정을 통해 종교적으로 무엇인가를 기원하는 상황을 제시한다. 작품의 제목처럼 '밤샘기도'는 인간이 동물적인 본능(잠)을 종교적인 경건성으로 대치하고 그리고 종교적 의식을 통해 자신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기원하는 과정이 된다. 종교적인 희구(longing for)는 종교라는 일종의 제1원인(the First Cause)이 존재의 조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종교적인 믿음의 결과를 통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와는 상관없이 종교성 자체가 암시하는 제의적인 것들(the ritual)의 차원이 인간 존재의 과정적 한계와 조건들에 관한 물음으로 육화된(being embodied) 다는 의미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제일 원인에 대한 의식이 예술적 상황에 관련되어 지각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미지가 사물의 맥락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베르그송(Henri Bergson)의 "물질-이미지"라는 관점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비올라는 이 작품에서 종교적인 시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시간, 말하자면 천상의 시간(탄생과 소멸이 존재하지 않는)을 은유함으로써, 이미지의 시간에 대한 대칭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올라는 이미 그의 1995년도 작품 〈The Greeting〉에서 시간의 기능을 이미지의 기능으로 전이시키는(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림으로써 이미지가 강조되게 만드는) 작품을 보여주었다. 이 작품의 분위기는 이후 그의 거의 모든 작품의 형식적인 기반이 되었고, 시간은 그런 작품들에서 인간 의식의 과정을 시각화 시킨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작품들은 르네상스의 집단 초상화의 포맷을 차용한 2000년의 〈The Quintet of the Astonished〉,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에 등장하는 예수의 부활이라는 주제와 형식을 차용한 2002년의 〈Emergence〉 같은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의 이미지로의 전이(transference)라는 작업으로 진화되어 간다. 그리고 이후 이번 전시에서 볼 수 있는 〈Ancestors〉(2012)같은 작품에서는 시간의 기능적인 측면이라는 형식적인 틀을 실제 시간을 도입해 변화시킨다. 이 작품에서 등장인물들의 움직임은 실제 시간의 속도에 의거한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그들은 무중력 혹은 지구와는 다른 중력장을 지닌 장소에서 움직이는 듯 한 생소함을 보인다. 이 생소함은 동영상 이미지의 화면 내부로의 거리나 형식적인(기술적인) 조작(manipulation)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작가의 시간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는 여기서 인간의 감각적 시간과 예술작품이 가지고 있는 무변화의 절대적인 시간을 융합하여 자신의 예술에 포섭된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비올라는 자신의 이전의 〈Emergence〉와 같은 작품에 남아있는 공간적인 흔적들을 이번 작품들에서는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이다.(이것은 일종의 예술가의 새로운 형식의 발명으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발명은 예술가가 끊임없이 작품을 통해 예술적 형식과 내용을 확장하고 진화시킨다는 것이고 또한 그의 예술적 수준이 증명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Inverted Birth〉(2014)와 같은 작품은 그가 1990년대에 했던 예술적 기원에 관한 소피스트적인 접근을 보여주는 작품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의 1996년 작품 〈The Crossing〉에서 비올라는 세상의 기원에 관한 의미를 소피스트적인 물리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시각을 보여준다. 물과 불을 통해 생명의 탄생과 소멸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구성하는 것들, 이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 물질적인 기원들을 시간의 이미지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올라에게서 감각은 기원에 선행하는 것이고, 개념과 의미는 물질처럼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비올라는 〈Water Martyr〉(2014)에서 종교적인 시간을 인간적인 삶의 감각적인 시간으로 변화시킨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관객은 어떤 면에서 시계적인 개념화된 시간과의 연관성이 존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순교라는 사건이 개입해 있기 때문이다. 사건은 공간적으로 발생하는 종교적인 사건이고 종교적인 순수성 안에서 해석될 수 있지만, 그러나 사건의 구조는 실제적인 삶의 구조에 얽혀있다. 물론 작품의 형식적인 장치들이 시간의 무중력적인 측면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주제 면에서 볼 때 이 작품은 세속적인 개념적 시간의 공간적 영역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작품과 시간에 관한 관심들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시간'을 물질적 선명성을 지닌 예술가의 매체로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자신의 작품들의 예술적 전개과정들을 통해 자신만의 시간의 드라마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올라의 예술은 1990년대의 존재의 물질적 기원에 관한 작품들, 2010년까지의 이미지의 시간성을 시각화 시키는 작품들, 2010년대 이후 시간 자체의 이미지를 탐구하는 작품들이라는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신만의 예술적 방향성과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면서 예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각화 시키는 그의 예술적 능력을 생각해 볼 때, 그는 이미 그의 작품들을 통해 대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말하자면 그는 드물게 시각예술에서 미디어 아트를 통해 미학적 진화(evolution)를 성취한 예술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용도 는 고려대 영문학과, 홍익대 대학원 미학과, 뉴욕주립대 대학원 예술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영상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199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갈라테아의 노래: 멀티미디어 아트의 문화적 역할과 가능성'으로 당선해 미술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쿤스트독 미술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